

제1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04.10)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3
II. 주요 조사 항목	4
III. 가중값 배율	5
IV. 표본의 특성	6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9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6

PART 1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5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 유선전화 RDD(10.7%)

응답률

▶ 16.7%(무선전화 17.4%, 유선전화 12.4%)

조사 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 19일(화)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4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II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참여 의향
- ▶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 ▶ 공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선거 관련 제도 인식

- ▶ 선거 관련 제도 인지 여부
 - 딥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인지 여부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및 금품·음식을 받은 자 과태료 제도 인지 여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 여부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전체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홍보 필요 사항
-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체		1,500	100.0	1,500	100.0	1.00
성별	남자	754	50.3	743	49.5	0.99
	여자	746	49.7	757	50.5	1.01
연령별	18~29세	191	12.7	239	16.0	1.25
	30대	193	12.9	222	14.8	1.15
	40대	251	16.7	268	17.8	1.07
	50대	334	22.3	294	19.6	0.88
	60대	290	19.3	261	17.4	0.90
	70세 이상	241	16.1	216	14.4	0.90
권역별	서울	284	18.9	280	18.7	0.99
	인천/경기	472	31.5	480	32.0	1.02
	대전/세종/충청	167	11.1	161	10.7	0.96
	광주/전라	148	9.9	146	9.7	0.98
	대구/경북	146	9.7	145	9.7	0.99
	부산/울산/경남	215	14.3	224	14.9	1.04
	강원/제주	68	4.5	64	4.3	0.95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성/연령/지역비를 따름



IV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1,500	100.0
성별	남자	743	49.5
	여자	757	50.5
연령별	18~29세	239	16.0
	30대	222	14.8
	40대	268	17.8
	50대	294	19.6
	60대	261	17.4
	70세 이상	216	14.4
권역별	서울	280	18.7
	인천/경기	480	32.0
	대전/세종/충청	161	10.7
	광주/전라	146	9.7
	대구/경북	145	9.7
	부산/울산/경남	224	14.9
	강원/제주	64	4.3
직업별	경영/관리/전문 사무직	516	34.4
	서비스/판매/영업직/ 생산/노무직	138	9.2
	자영업	271	18.1
	농/임/어업	34	2.3
	주부	297	19.8
	학생	84	5.6
	무직/기타/응답거절	160	10.6
학력별	중졸 이하	141	9.4
	고졸	393	26.2
	대재 이상	940	62.7
	모름/응답거절	26	1.7
소득별	200만원 미만	216	14.4
	200-400만원 미만	390	26.0
	400-700만원 미만	424	28.3
	700만원 이상	327	21.8
	모름/응답거절	144	9.6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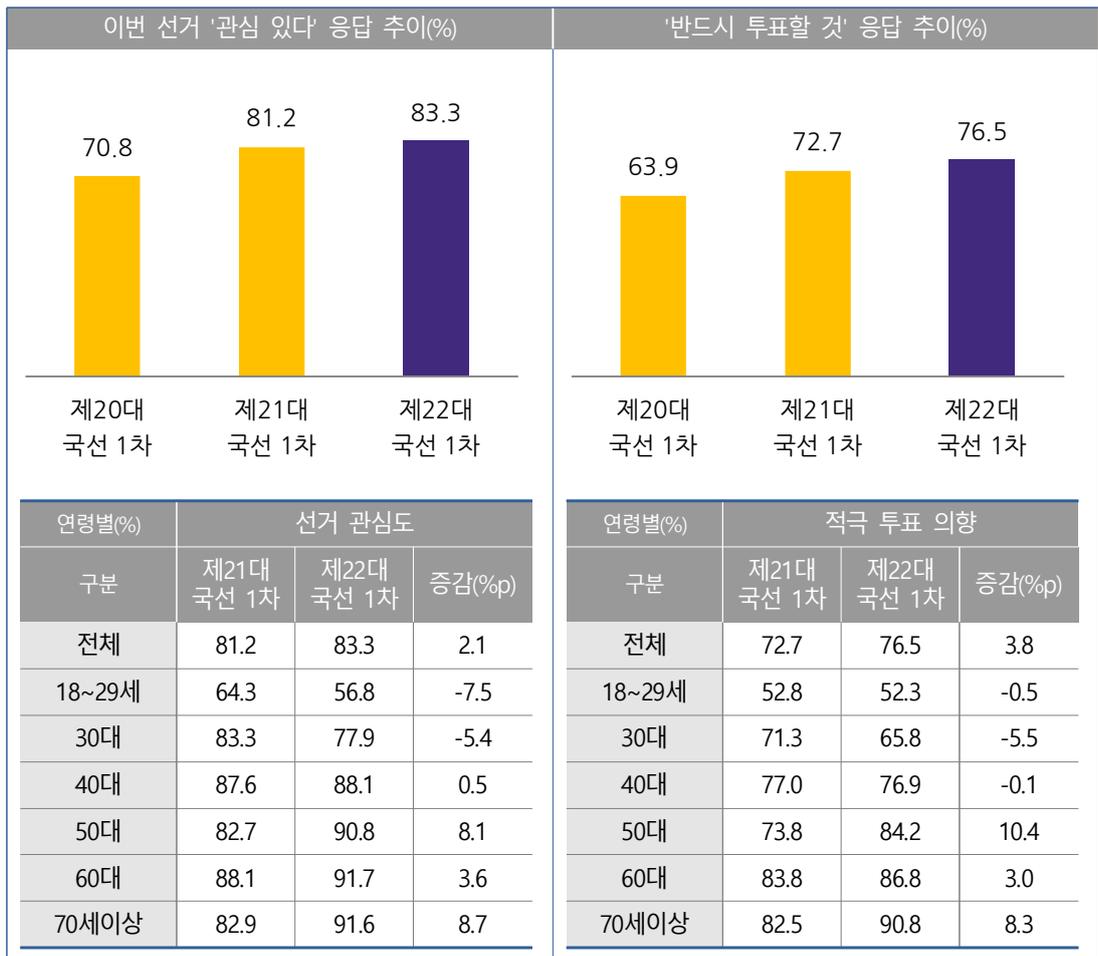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 있음' 83.3%, '반드시 투표할 것' 76.5%

→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선거 관심도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으며,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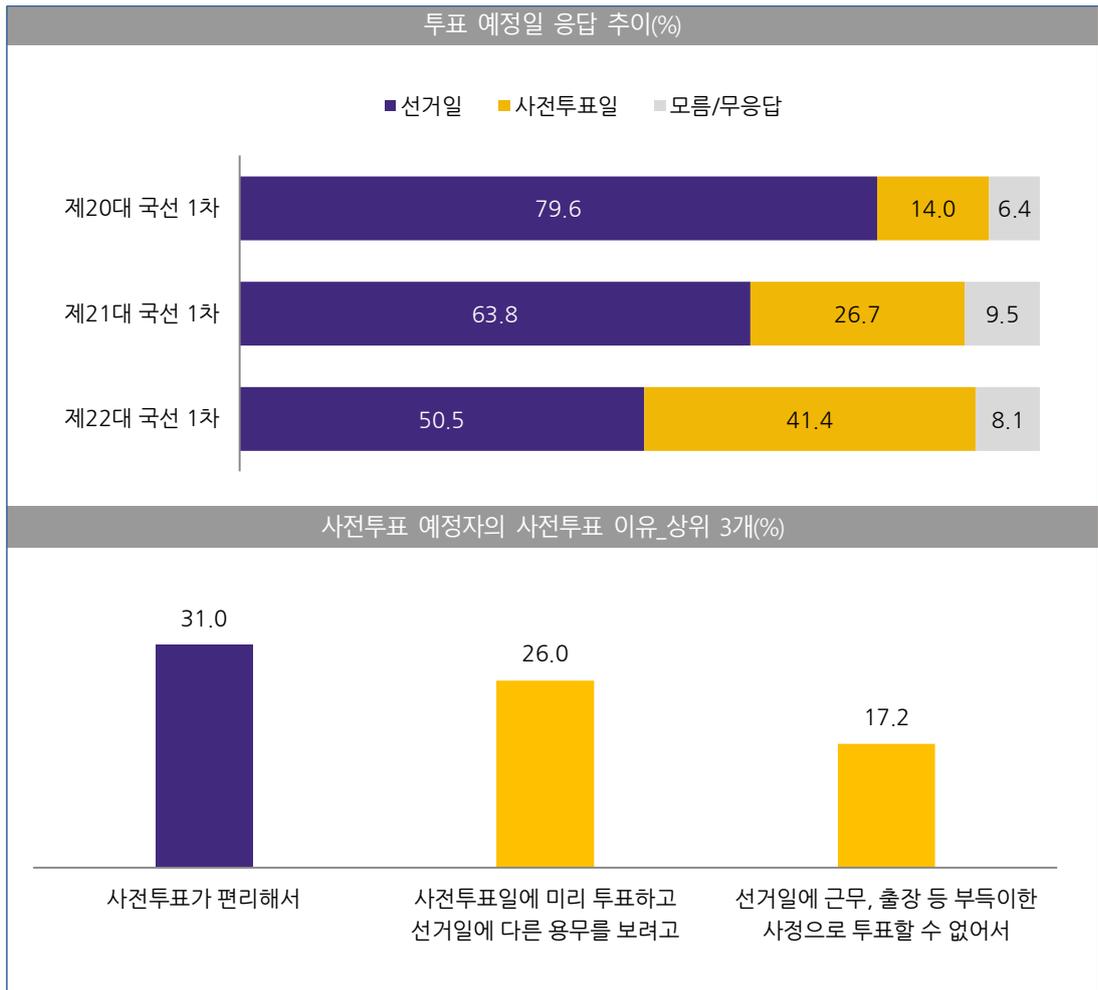


2. 투표 예정일 및 사전투표 이유

● 선거일 투표 50.5%, 사전투표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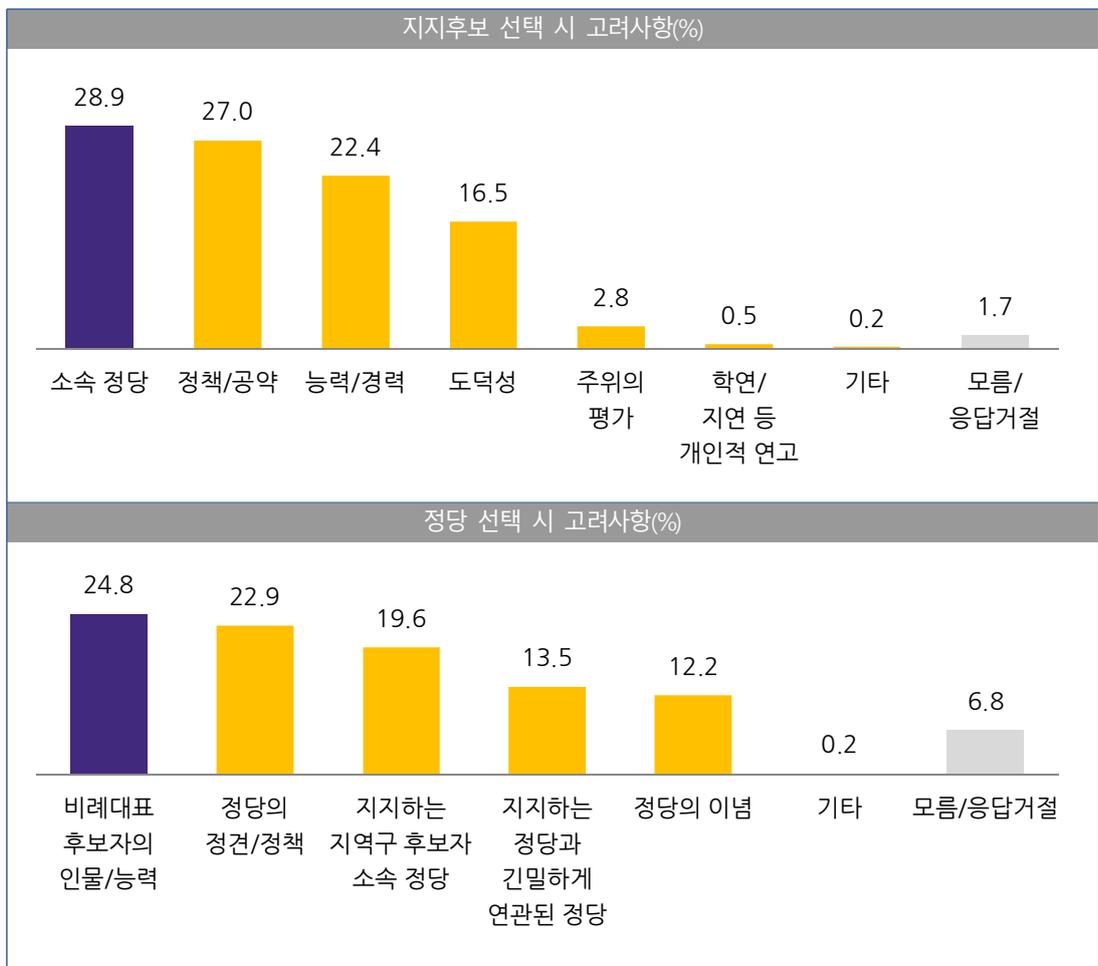
→ 사전투표 의향이 제20대 국선 1차 대비 27.4%p, 제21대 국선 1차 대비 14.7%p 크게 증가

●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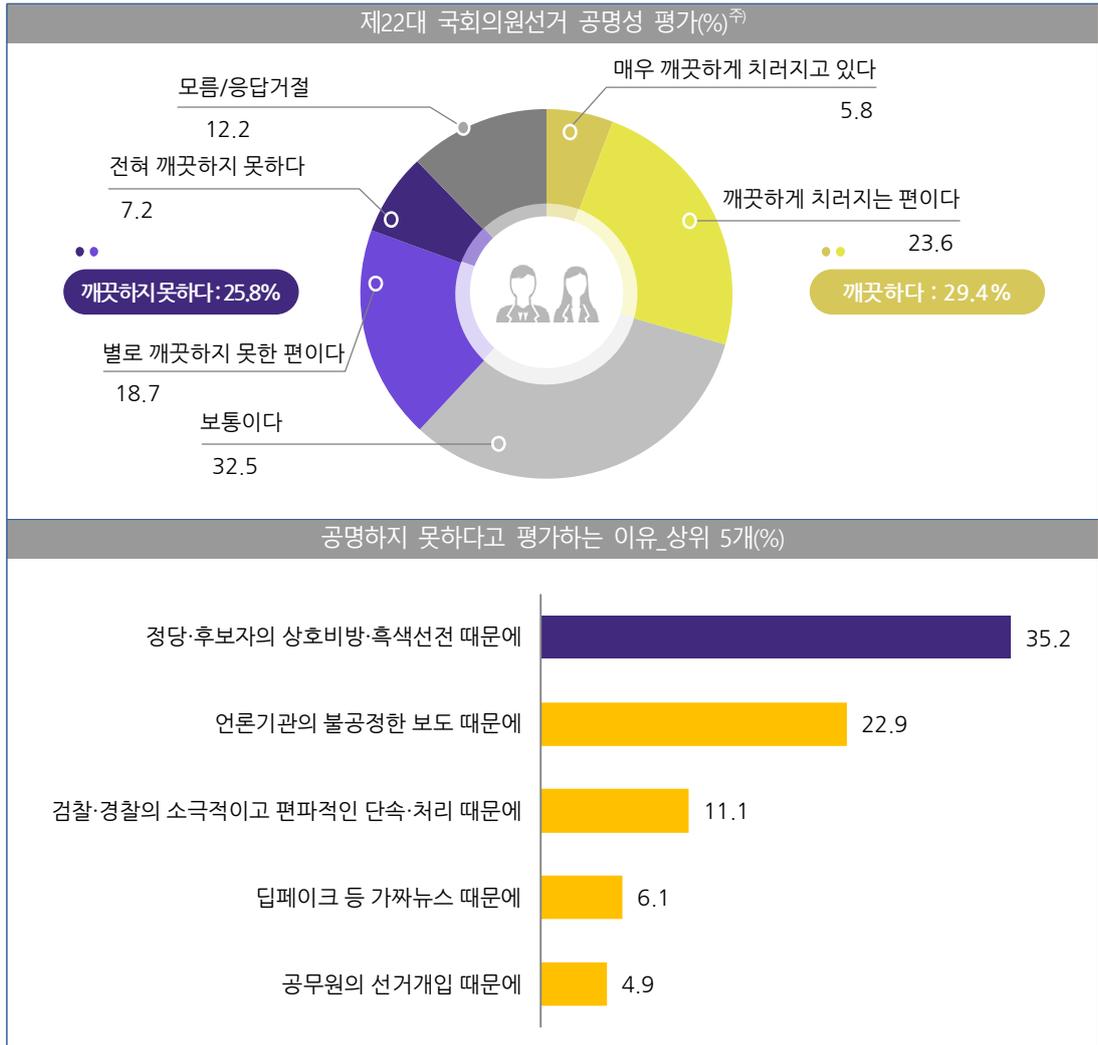
3.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소속 정당'(28.9%)과 '정책·공약'(27.0%)이 가장 중요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4.8%)과 '정당의 정견·정책'(22.9%)이 가장 중요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모두 '정책·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에는 '소속 정당',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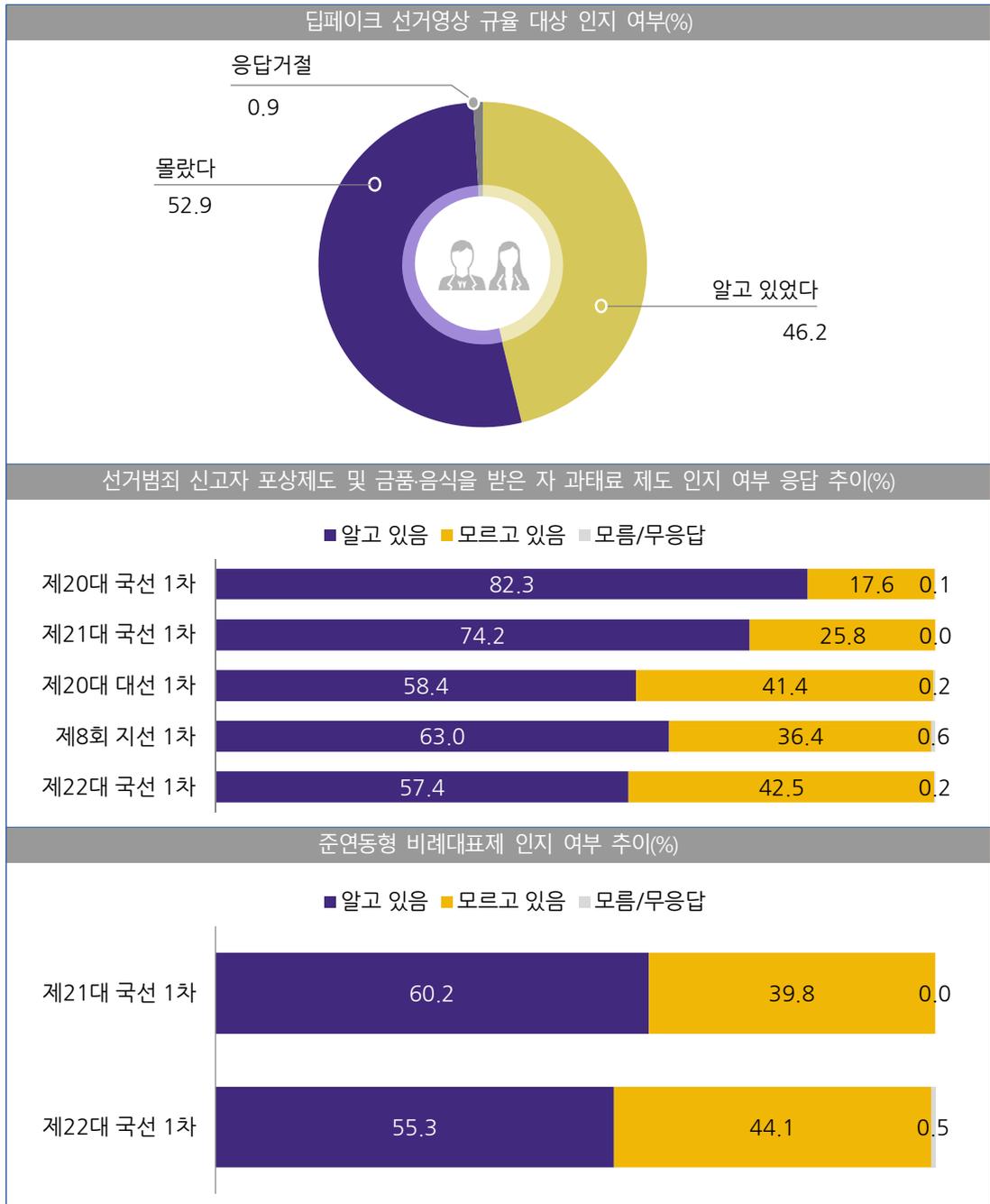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에 대해 ‘보통이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29.4%,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5.8%
-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주) 제21대 국선 1차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깨끗하다(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49.8%, ‘깨끗하지 못하다(별로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 전혀 깨끗하지 못하다)’ 32.3%, ‘모름/무응답’ 17.9%로 나타남

5. 선거 관련 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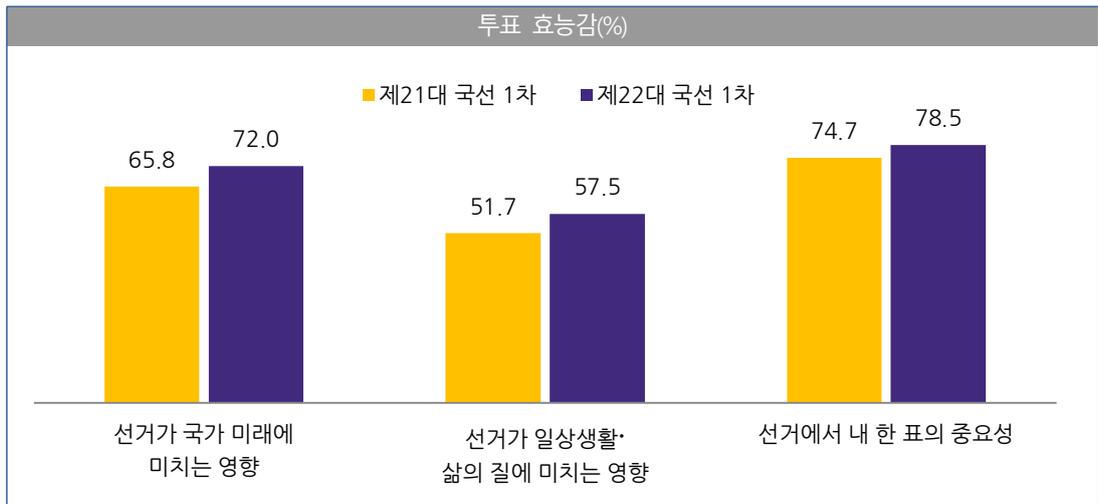
- **딤편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알고 있었다' 46.2%,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알고 있었다' 57.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알고 있었다'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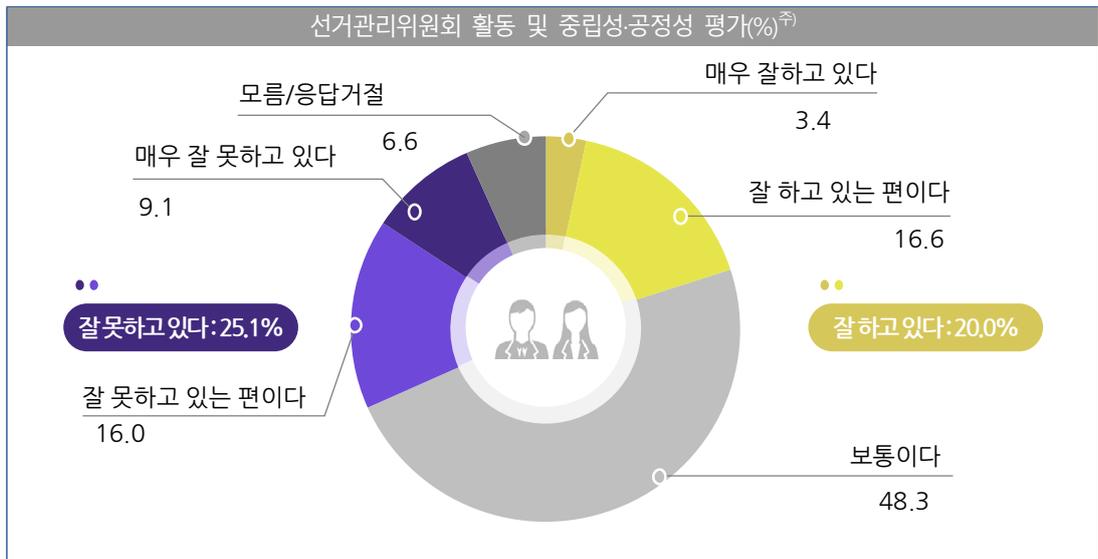
6.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에 관한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8.5%),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72.0%),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영역에서의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



7.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48.3%로 가장 많았고, ‘긍정’(20.0%)이 ‘부정’(25.1%)보다 낮게 나타남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20.0%, 부정평가(25.1%)보다 낮게 나타남



주) 제21대 국선 1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 잘 하고 있는 편이다)’ 55.7%, ‘잘 못하고 있다(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9.7%, ‘모름/무응답’ 14.5%로 나타남

8.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로는 유권자의 43.7%가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응답함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_상위 3개 ^{주)} (%)	제20대 국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2대 국선 1차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33.1	40.4	43.7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1.7	21.1	21.6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	11.5	10.9	15.3

주)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상위 3개는 제22대 국선 1차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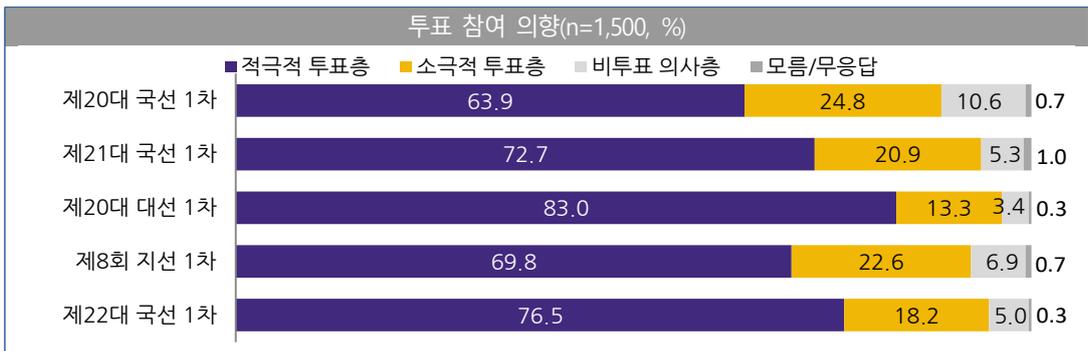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 있음’ 83.3%, ‘반드시 투표할 것’ 76.5%

→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선거 관심도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으며,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음’ 53.7%, ‘약간 관심 있음’ 29.6% 등 유권자의 83.3%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76.5%로 조사됨
- 직전 국선대비 30대 이하 연령층은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 모두 전체적으로 하락한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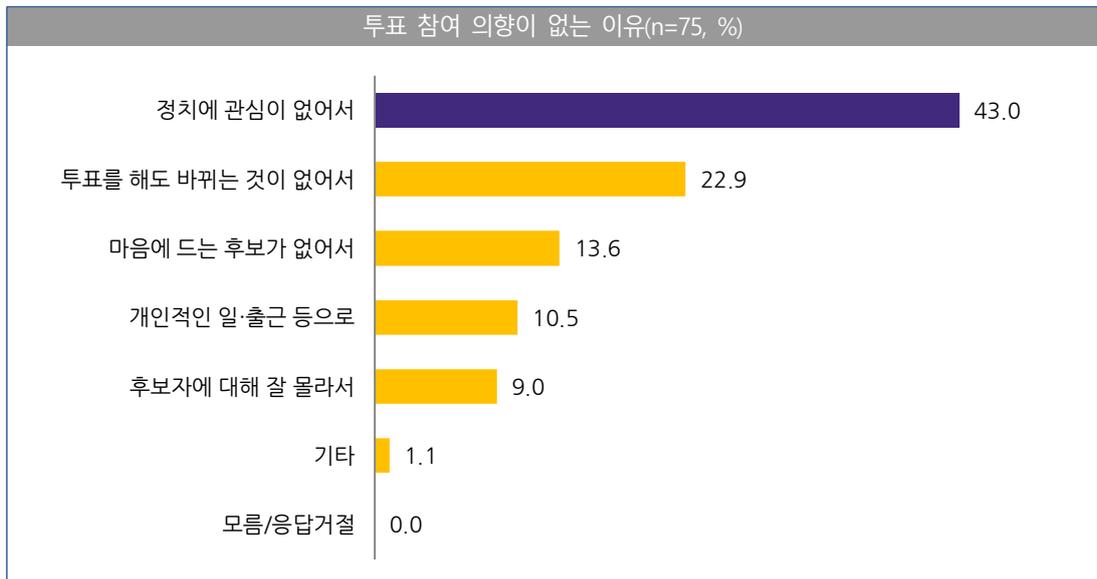
연령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20대 국선 1차 ^{주)}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제22대 국선 1차	제20대 국선 1차 ^{주)}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제22대 국선 1차
전체	70.8	81.2	89.9	77.9	83.3	63.9	72.7	83.0	69.8	76.5
(18)19~29세	63.3	64.3	77.0	52.1	56.8	55.4	52.8	66.4	40.1	52.3
30대	70.5	83.3	90.2	73.2	77.9	59.6	71.3	84.1	63.0	65.8
40대	70.6	87.6	90.2	86.6	88.1	63.2	77.0	81.7	78.9	76.9
50대	73.5	82.7	93.5	80.3	90.8	65.4	73.8	87.2	72.4	84.2
60대		88.1	94.6	90.1	91.7		83.8	89.8	85.3	86.8
70세 이상	74.4	82.9	95.3	85.9	91.6	72.8	82.5	90.7	80.6	90.8

주) 제20대 국선 1차는 60대 이상으로 조사

2.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22.9%), '마음에 드는 후보자·정당이 없어서'(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제21대 국선 1차 대비 낮게 나타난 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3.0%), '마음에 드는 후보자·정당이 없어서'(13.6%)라는 응답은 제21대 국선 1차 대비 높게 나타남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20대 국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제22대 국선 1차
	(n=160)	(n=80)	(n=51)	(n=105)	(n=75)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5.5	20.0	13.8	21.8	43.0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52.9	33.9	17.2	29.2	22.9
마음에 드는 후보자·정당이 없어서	7.8	9.6	55.2	16.2	13.6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9.3	1.1	6.0	17.6	10.5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7.9	16.9	4.0	11.5	9.0
기타	6.6	2.3	1.9	1.8	1.1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14.4	2.0	0.0	
모름/응답거절	0.0	1.7	0.0	1.9	0.0

주)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는 제22대 국선 1차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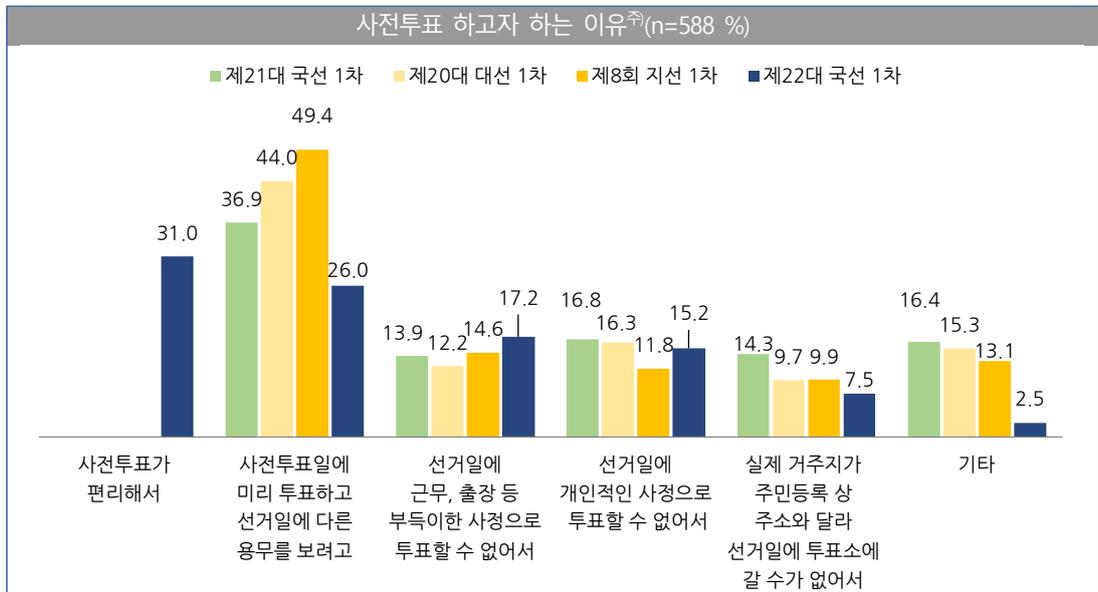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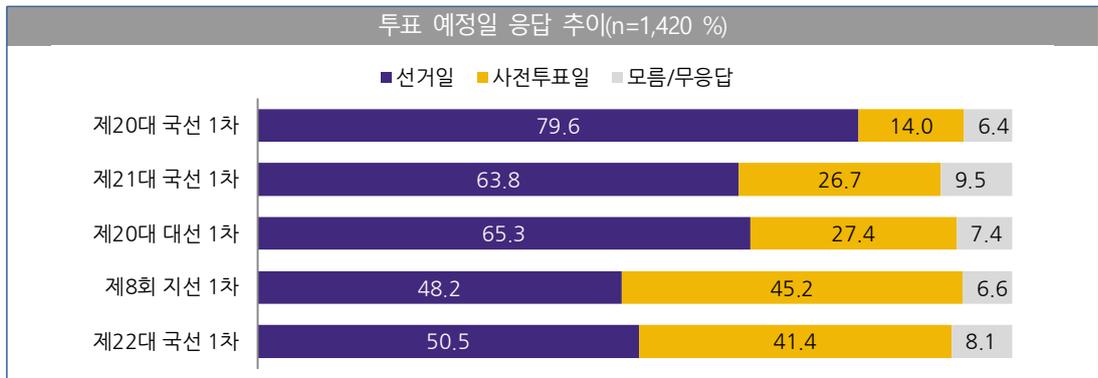


3. 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사전투표 의향은 41.4%로 제21대 국선 대비 14.7%p 증가하였으나, 제8회 지선 대비 3.8%p 감소

→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1.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투표의향자의 50.5%는 '4월 10일'에 투표하겠다, 41.4%는 '4월 5일 또는 6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8회 지선에 비해서는 3.8%p 감소함



주) '사전투표가 편리해서'는 제22대 국선 1차에서 최초로 추가된 선택지로 비교시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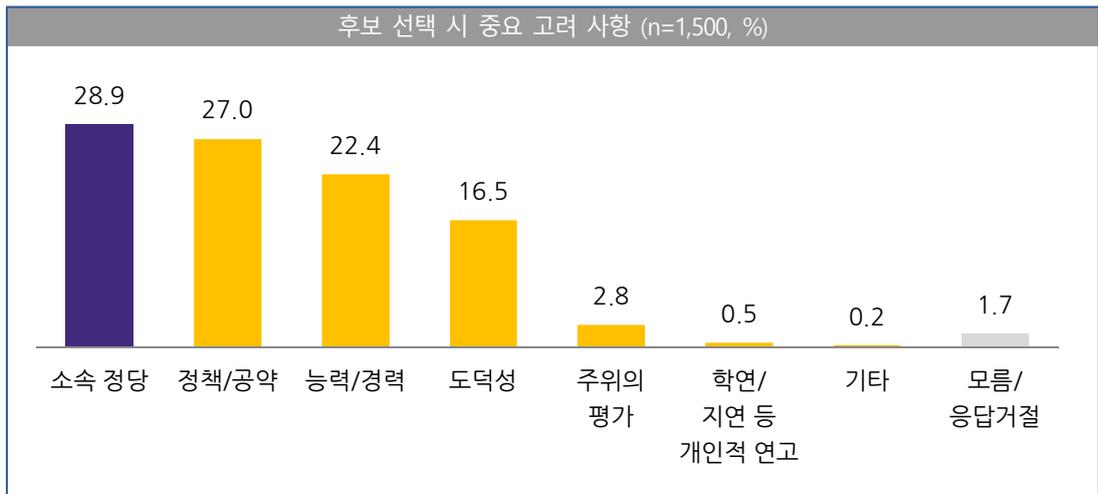
4.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소속 정당'(28.9%)과 '정책·공약'(27.0%)이 가장 중요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4.8%)과 '정당의 정견·정책'(22.9%)이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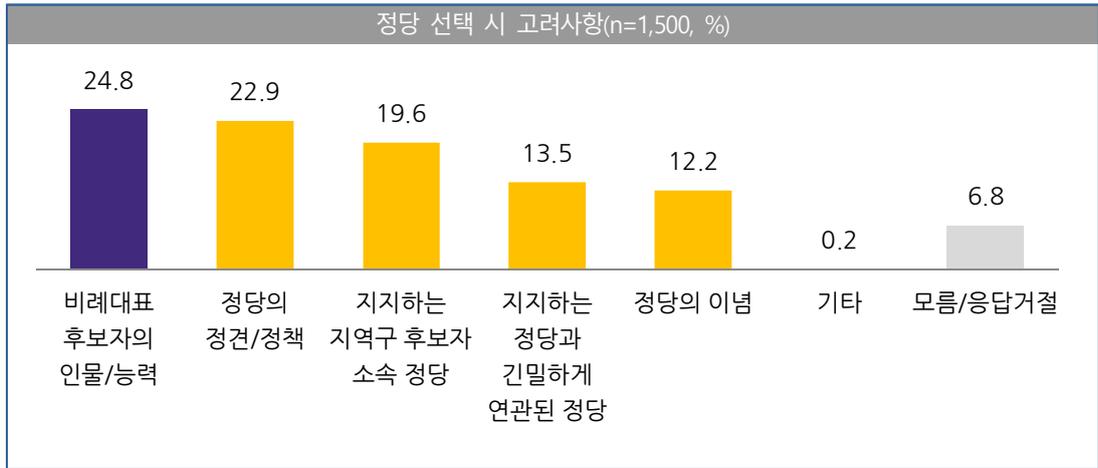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모두 '정책·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지역구 후보자 선택시에는 '소속 정당',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속 정당'이 28.9%, '정책·공약'이 27.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위의 평가'(2.8%),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0.5%) 등은 낮게 나타남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역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4.8%)과 '정당의 정견·정책'(22.9%)이 높았고, 다음으로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6%),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소속 정당	정책·공약	능력·경력	도덕성	주위의 평가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인물·능력·도덕성	정치 경력	출신 지역	기타	모름/응답거절
제19대 국선 1차	13.8	34.0	-	-	7.6	1.2	30.8	4.4	0.8	1.7	5.7
제20대 국선 1차	16.0	27.3	-	-	4.0	1.8	35.1	5.8	1.6	4.4	4.0
제21대 국선 1차	29.0	29.7	-	-	2.7	0.5	29.8	3.1	0.7	0.2	4.3
제22대 국선 1차	28.9	27.0	22.4	16.5	2.8	0.5	-	-	-	0.2	1.7

주) '능력·경력', '도덕성'은 기존의 '인물·능력·도덕성', '정치경력' 선택지에서 제22대 국선에 변경된 것으로 비교시 유의해야 함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정당의 정견/정책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정당의 이념	기타	지지한 후보와 같은 정당	모름/응답거절
제20대 국선 1차	27.5	23.0	-	-	15.6	9.3	17.6	7.0
제21대 국선 1차	21.3	26.7	-	-	17.8	0.2	25.7	8.2
제22대 국선 1차	24.8	22.9	19.6	13.5	12.2	0.2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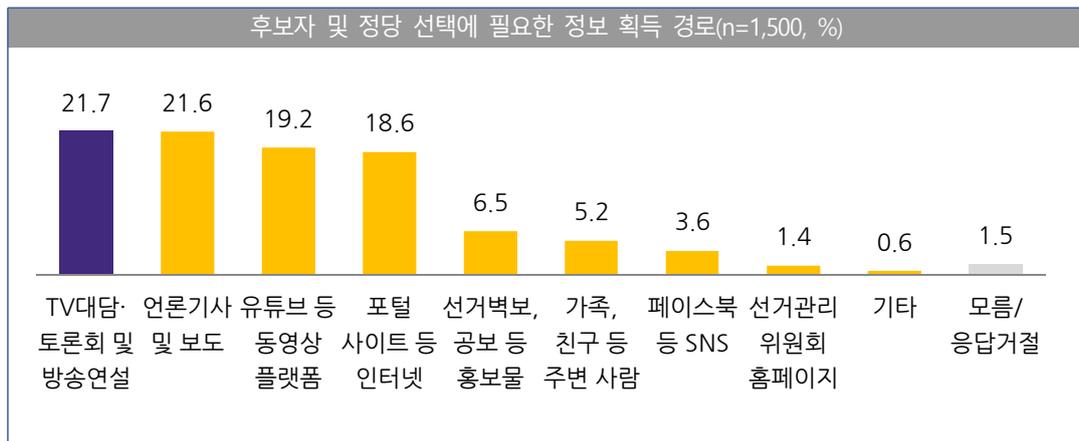
주)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은 기존의 '지지한 후보와 같은 정당' 선택지에서 제22대 국선에 변경된 것으로 비교시 유의해야 함

5.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TV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21.7%)과 '언론기사 및 보도'(21.6%)가 후보자나 지지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 그 외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19.2%)',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18.6%) 등에서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경로는 'TV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21.7%), '언론기사 및 보도'(21.6%),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19.2%),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18.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TV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은 70세 이상(48.7%), '언론기사 및 보도'는 60대(31.1%),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은 40~50대(각각 26.9%, 26.6%),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은 30대 이하(각각 28.3%, 30.3%)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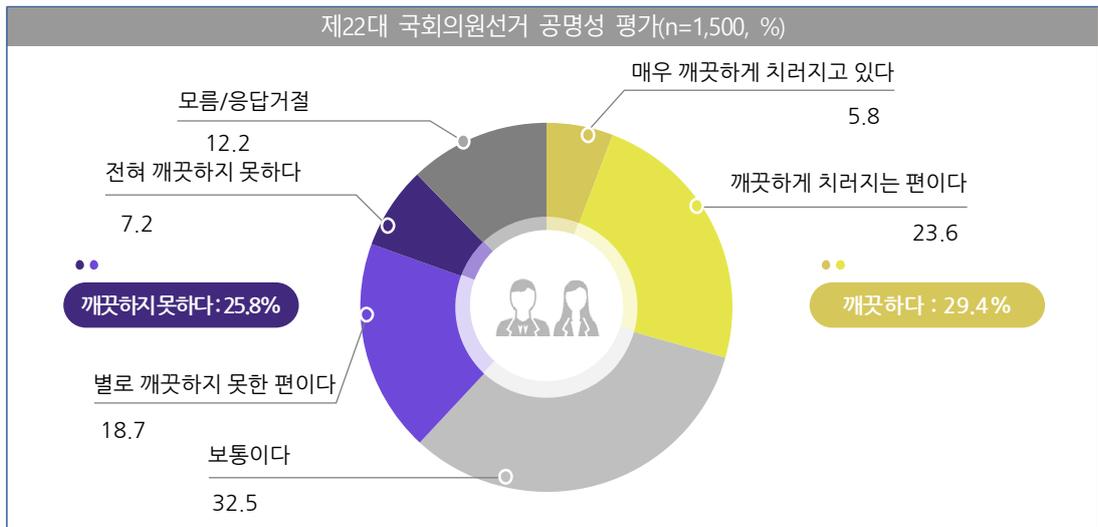


연령대별 정보획득경로 Top 4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언론기사 및 보도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만18~29세	9.0	21.4	11.8	28.3
30대	11.0	19.9	17.8	30.3
40대	15.2	20.4	26.9	23.5
50대	21.6	18.8	26.6	15.8
60대	27.1	31.1	14.8	10.2
70세 이상	48.7	17.6	14.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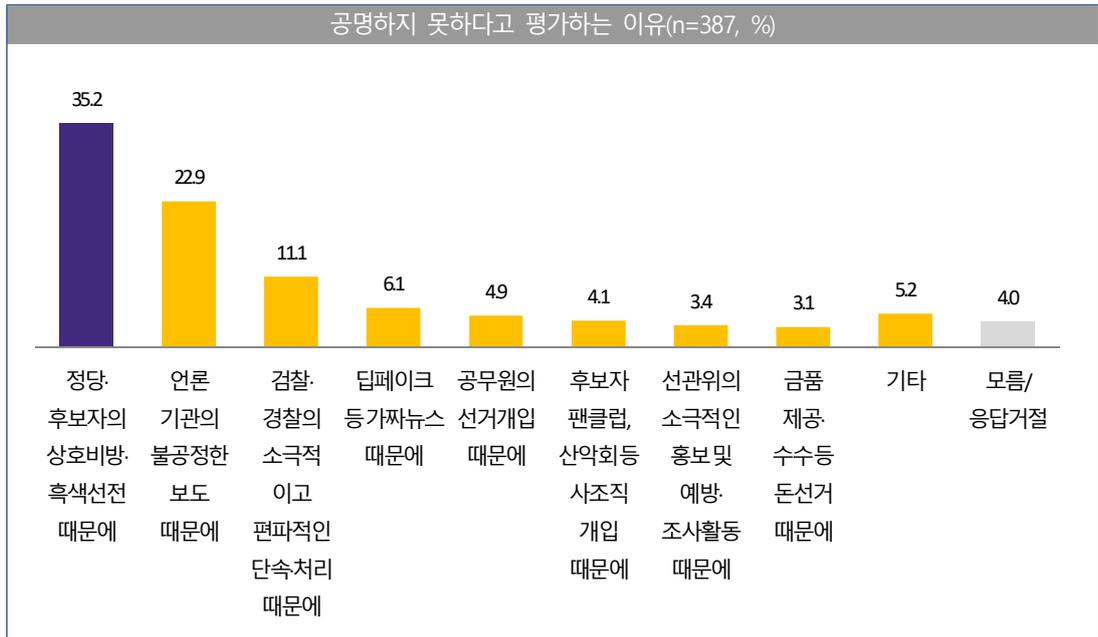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에 대해 ‘보통이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29.4%,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5.8%
-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지난 제8회 지선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1.2%) 대비 14.0%p 증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성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5.8%,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23.6% 등 유권자 10명 중 3명 정도(29.4%)가 공명성에 대해 긍정 평가해 부정 평가(25.8%)보다 3.6%p 더 많음.
-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5.2%)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22.9%)에 응답이 집중되었으며,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응답은 8.0%p 증가함



주) 제21대 국선 1차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깨끗하다(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49.8%, ‘깨끗하지 못하다(별로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 전혀 깨끗하지 못하다)’ 32.3%, ‘모름/무응답’ 17.9%로 나타남



공명성 평가(%)	공명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_상위 3개 ^{주)}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 처리 때문에
제20대 국선 1차	34.4	19.9	5.9
제21대 국선 1차	27.2	29.0	10.9
제20대 대선 1차	34.4	30.1	13.3
제8회 지선1차	21.2	30.6	8.9
제22대 국선 1차	35.2	22.9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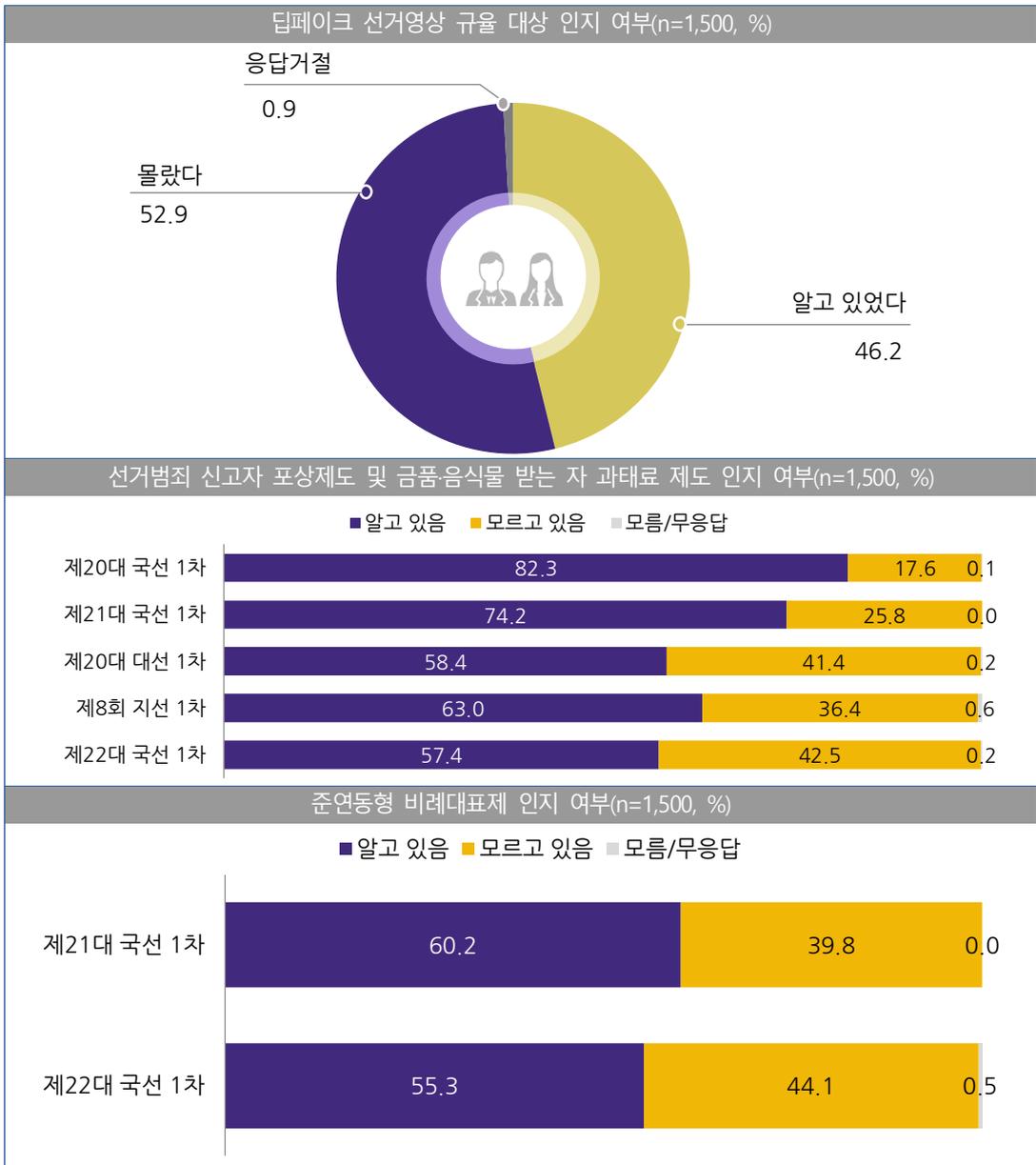
주)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_상위 3개는 제22대 국선 1차 기준임



7. 선거 관련 제도 인지 여부

- **답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대상 ‘알고 있다’ 46.2%**
-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알고 있다’ 57.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알고 있다’ 55.3%**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답페이크 선거영상이 규율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46.2%로 나타남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및 금품·음식물 받는 자 과태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7.4%로 제20대 대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제20대 국선, 제21대 국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지도는 55.3%로 제21대 국선에 비해 4.9%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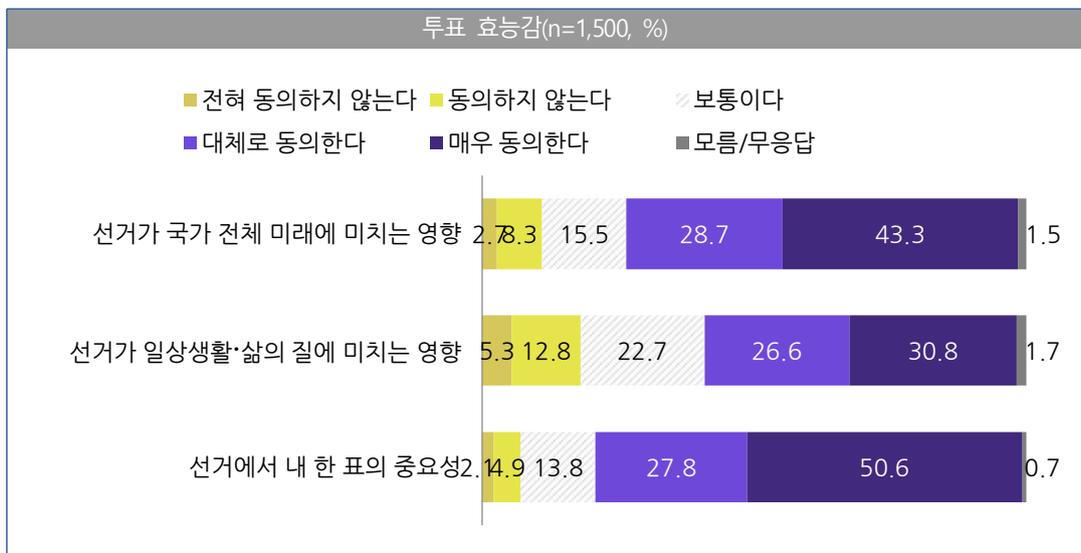


8.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8.5%),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72.0%),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5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영역에서의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전체 영역에서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하였으며,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두 항목의 동의 비율은 70%를 상회하여, 투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보임
-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비율은 57.5%로 이전 선거에 비해 높지만,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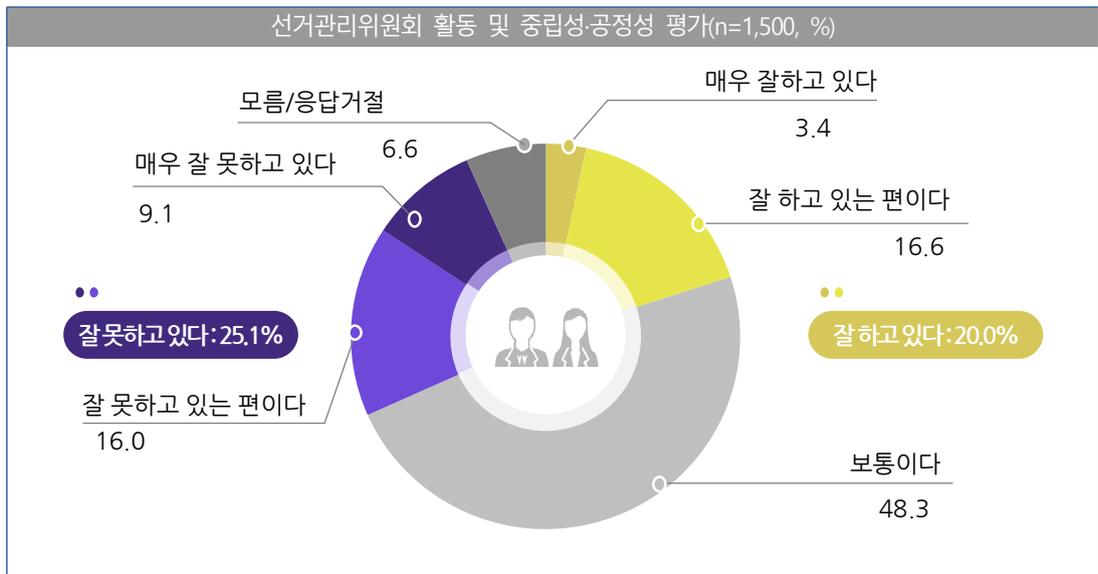
투표 효능감 '동의' (%)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제22대 국선 1차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	65.8	78.7	68.2	72.0
선거가 일상생활·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51.7	56.8	48.2	57.5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4.7	74.5	70.9	78.5

9.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48.3%로 가장 많았고, ‘긍정’(20.0%)이 ‘부정’(25.1%)보다 낮게 나타남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긍정평가가 21.0%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14.7%)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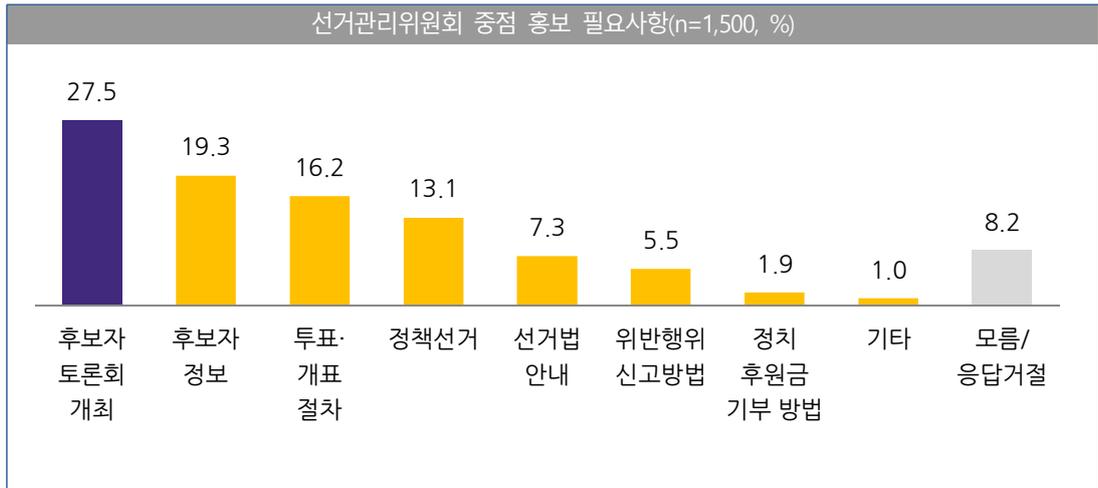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3.4%, ‘잘하고 있는 편이다’ 16.6% 등 긍정평가가 20.0%로 부정평가(25.1%)보다 낮게 나타남. 선거 관심 있는 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선거 관심 없는 층에 비해 높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잘하고 있다	보통	잘 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20.0	48.3	25.1	6.6
선거 관심 있는 층	21.0	46.5	26.2	6.3
선거 관심 없는 층	14.7	57.7	19.8	7.8

10.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홍보 필요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중점 홍보 필요사항으로 유권자의 10명 중 3명 정도가 ‘후보자 토론회 개최’(27.5%)를 응답함
 - 그 외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후보자 정보’(19.3%), ‘투표·개표 절차’(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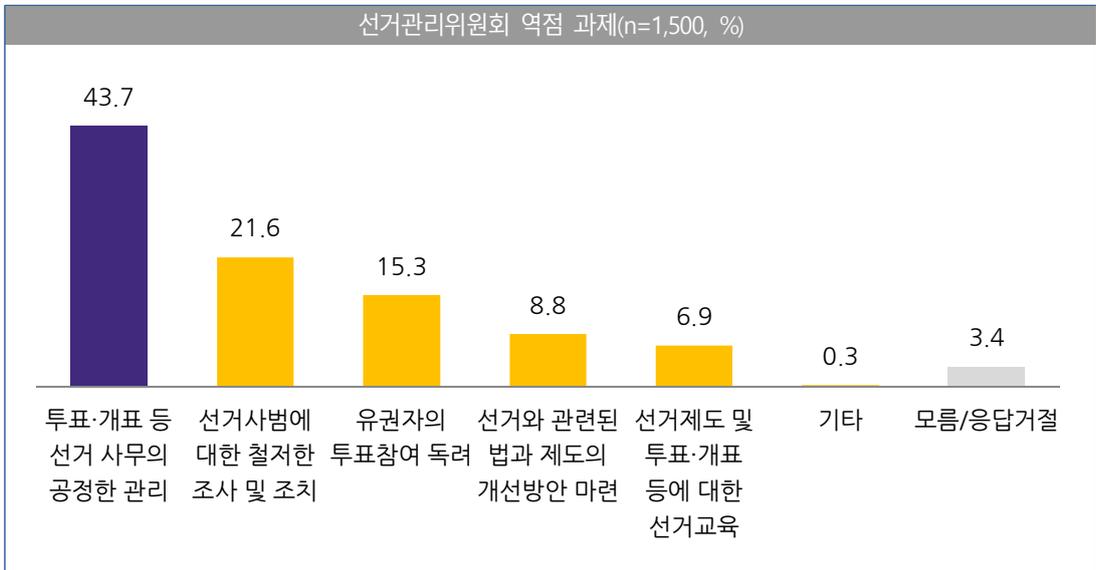


11.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로는 유권자의 10명 중 4명이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43.7%)를 응답함

→ 모든 세대/계층에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1순위로 응답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43.7%로 가장 높았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1.6%,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 15.3%,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는 제20대 국선부터 계속하여 1순위로 응답되고 있으나,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 비해서는 비중이 감소함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제20대 국선 1차	제21대 국선 1차	제20대 대선 1차	제8회 지선 1차	제22대 국선 1차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33.1	40.4	51.7	55.1	43.7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1.7	21.1	15.8	14.8	21.6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11.5	10.9	8.8	7.8	15.3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3.8	14.5	11.6	10.5	8.8
선거제도 및 투표·개표 등에 대한 선거교육 ^{주)}	-	7.4	6.8	6.8	6.9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9.2	-	-	-	-
기타	4.7	0.5	0.5	0.2	0.3
모름/무응답	6.0	5.2	4.9	4.7	3.4

주) 제22대 국선 1차부터 ‘주권의식 함양 위한 민주시민 교육’ 선택지가 ‘선거제도 및 투표·개표 등에 대한 선거교육’으로 변경되었음